

독도에 새겨진 ‘한국’, ‘한국령’ 암각문의 주권적 의미와 보존방안

안동립 동아지도 대표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서론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속에서 잊혀졌던 독도 암각문 ‘韓國領/한국령’이 최근에 동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암각문의 의미나 가치는 어느 암각문들과는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독도의 소속이나 주권의 의미가 반영된 이러한 암각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새겨졌던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암각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독도에 새겨진 암각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독도 침탈 및 도발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러일전쟁 중에 이 섬을 침탈했던 것일 뿐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우리의 국권이 상실되었던 상황이므로 이 섬 또한 일제의 손에 들어갔었지만, 해방과 함께 한국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18일,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 대한 한국의

* 논문 투고일: 2020. 10. 12, 심사 완료일: 2020. 11. 16, 게재 확정일: 2020. 11. 25.

평화선 선포에 대해 일본에서 2월 28일 처음으로 항의를 하면서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은 본격화되었다. 예컨대, 평화선 선포 직후인 1953년 5~6월 경에는 독도에 무단 상륙하여 위령비를 파손시켰으며, 1954년 8월과 1955년 9월에는 일본 순시선과 독도 의용수비대 간의 총격전 등 한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¹

당시에는 일본인들의 독도 상륙과 일본영토표식 설치, 한국 측의 격퇴와 한국영토표식 설치가 몇 차례 반복되었고,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한일 정부 간의 구상서가 몇 차례 교환되었다. 1954년 8월 10일에는 한국 측에 의한 등대 점등이 있었고, 동년 9월 15일에는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²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급기야 독도의 암벽에 한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한국’, ‘한국령’과 같은 암각문이 새겨졌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최근에 발견된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당시에 누군가 개인적으로 독도의 암벽에 글자를 새기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종의 낙서로 취급될 수도 있겠지만, 관의 주도하에 암각 전문가(한진오 씨)를 섭외하여 독도의 몇몇 지점에 주권을 상징하는 암각을 시행했다면 이는 명백히 최고 수준의 영토주권 행사의 한 가지 양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또는 ‘한국령’이라고 암각된 처소가 총 3개소로 알려졌었는데, 아주 최근까지 잊혀졌던 나머지 한 곳의 암각문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주권을 상징하는 독도의 이러한 암각문을 여타의 암각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단순히 독도에 어떤 암각문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은 과연 충분한 것인가? 그동안 잊혀졌던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이 발견된 상황에서 적어도 주권을 상징하는 암각문의 암각 배경 및 의의, 그리고 보존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시도

1 배진수, 2016,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와 일본의 도발 패턴」, 『독도연구』 21, 321쪽.

2 1961년 4월 1일에는 독도에 지반이 처음으로 부여되기에 이르렀다(이법관, 2012, 48쪽); 배진수, 위의 논문, 321쪽.

해볼 필요가 있다.

독도에 분포하는 암각문에 관한 논고는 안동립³의 연구만 있을뿐, 다른 시도는 전무하다. 안동립⁴은 독도에 새겨진 다양한 암각문들을 영토의식과 연관지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한국령, 독도, 영토 표석, 청동 영토 표석, 한승수 비석, 이명박 비석, 동도부두 준공비, 위령비, 한국산악회 독도비, 어민위령비, 유신과업 완수하자 등과 같이 독도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문자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암각문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최근에 발견된 암각문을 포함하여 영토주권을 표현하는 ‘한국’, ‘한국령’ 암각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암각문의 암각 배경 및 주취, 경위, 주권적 의미, 보존방안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 ‘한국령’ 문자의 암각 배경 및 경위, 3장에서는 잊혀진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의 발견경위 및 서체 분석, 4장에서는 풍화와 훼손의 문제와 보존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2005년부터 매년 독도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5~6년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독도 등대 김현길 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이 와서 2020년 7월 17일에 동도에 입도하여 그동안 세간에 잊혀졌던 암각처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2020년 7월 22~23일까지 독도에 머물면서 글자의 흔적을 따라 임시로 복원을 시도해 보았다. 이번에 발견된 암각문은 기존의 것들과는 달리 한자표기와 한글표기가 병기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자는 암각된 바위의 풍화상태를 확인하고, 글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등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암벽에 ‘한국’, ‘한국령’을 암각한 당사자(한진오 씨) 가족의 진술과 과거에 독도에 근무했던 전투대장의 진술도 확보하였다.

3 안동립, 2017, 「독도에 새겨진 암각 글자의 분석과 영토 인식」, 『한국지도학회지』 17(3).

4 안동립, 위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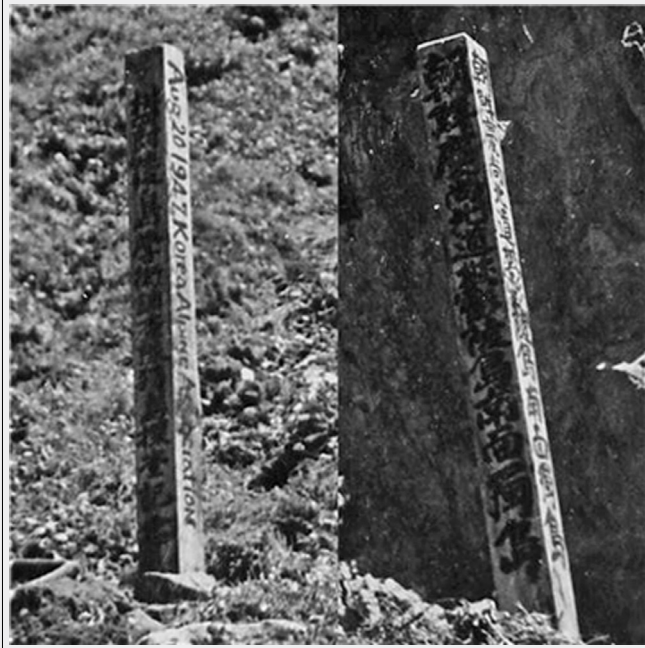
II. ‘한국’, ‘한국령’ 문자의 암각 배경 및 경위

1951년 9월 8일에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지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된다면 일본은 미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맥아더라인은 폐기되고, 한국의 어장보호와 어업발전에는 큰 타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5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월 18일에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평화선 선언)을 공포했던 것이다.⁵

한국 정부가 선포한 평화선 안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었다. 한국의 평화선 선포 직후, 일본에서는 주요 언론매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기 시작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구상서 형태의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해상보안청 소속의 순시선을 독도에 보내 승무원들을 상륙시키고 이 섬이 일본령 죽도(다케시마)라는 표주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섬을 일본에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어 실질적인 독도 경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7월 8일에 「일본의 독도침범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동년 10월 중순에는 한국산악회에서 학술조사단을 독도에 파견하여 일본인들이 설치한 표주를 제거하였다.⁶ 이렇듯, 당시에는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한일 간의 공방이 치열하였는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통해 오늘날까지 독도를 지킬 수 있었다.

5 김학준, 2010, 『독도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45쪽.

6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4일, 한국산악회 대원들은 일본 사카이 해상보안부에 의해 설치된 표주를 제거했다(그림 2). 이 표주에는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 소속으로 적혀 있었다(독도연구소 편, 2014, 108~109쪽); 김학준, 앞의 책, 246~253쪽.



〈그림 1〉 1947 한국령 표주 사진
출처: 연합뉴스, 2016년 8월 10일자 기사

한편, 해방 직후인 1947년 8월 20일에는 한국산악회 ‘울릉도 학술조사대’⁷가 처음으로 동도에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시하는 표주를 설치하였다(〈그림 1〉).⁸ 그 후, 한일 양측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설치해놓은 표주를 철거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유권을 상징하는 표주를 세우는 작업을 여러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1954년 5월 18일에 공무원들과 암각 전문가가 독도에

7 한국산악회는 해방 후, 과도정부(군정)의 후원으로 1946년 2월부터 195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국토구명사업〉의 일환으로 국토의 지형 지세, 동물, 식물, 광물표본 및 농림, 지질, 방언 등 각종 학술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국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울릉도·독도에 대한 학술조사 활동은 1947년, 1952년, 1953년에 실시되었다. 한국산악회 및 그들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기석의 논문을 참조할 것(이기석, 2017, 134~171쪽).

8 이 표주에는 ‘조선 경상북도 울릉도 남면 독도’, ‘Aug 20 1947 Korea Alpine Association’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은 이상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체육위원이 소장하다가 최근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증했다(연합뉴스, 2016년 8월 10일).

입도하여 일본인들이 세운 표지판을 철거하고, 이 섬의 암벽에 ‘한국’, ‘한국령’이라는 문자를 암각하기에 이르렀다.⁹

독도의 암벽에 새겨진 ‘한국’, ‘한국령’이라는 암각문은 여타의 암각문들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즉,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영원히 갖고 가겠다는 당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피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상징성이 강한 암각의 시기나 제작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울릉군에서 제작한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 ‘한국령’과 같이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암각문이 새겨진 시기, 주체, 제작과정 등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1954년 6월, 독도의용수비대에 의해 ‘한국령’ 암각문이 새겨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¹⁰



〈그림 2〉 한국산악회 대원들이 제거한 일본측 표주
출처: 김한용, 1953. 10. 14. 국회사서관 독도자료실(박병주 기증)

9 김학준, 앞의 책, 253쪽.

10 울릉군의 자료집에는 각석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암각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독도박물관, 2019. 『한국인의 삶의 기록, 독도』 독도박물관 연구총서, 130~132쪽).

또한, 독도박물관의 자료집에 의하면,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예가 한진호 씨에게 부탁하여 글자를 새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문기사에 다뤄진 한진오 씨 유가족의 진술을 소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논조는 정부의 주도로 이러한 암각문이 제작된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울릉군의 자료집에는 최근에 발견된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림 3〉 '한국령' 암각문 이미지

출처: (a) 안동립 촬영(2013년 10월 14일); (b) 김국률 촬영(1984년 5월 31일).

11 울릉군에서 제작된 자료집에는 2016년 8월 12일자 『경상매일신문』의 기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 기사는 독도에 '한국', '한국령' 암각문을 새긴 한진오 씨의 유족인 3녀 한경자 씨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독도의용수비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요청으로 한진오 씨가 독도에 들어가 작업한 것으로 기록된다. 당시 정부 측의 철저한 보안 요청에 따라 한씨 가족들은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고인은 작업을 위해 석공 1명을 데리고 독도에 들어가서 동도와 서도의 암벽 4-5개 처에 영토 표시를 더 해놓았다고 한다. 고인은 정부로부터 받은 사례비로 부인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한다. 이 글에도 암각의 행위자는 명확하게 한진오로 언급하고 있는데, 울릉군의 자료집에는 한진호로 기록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추가적으로 입수한 한진오 씨의 3녀가 보낸 증언이나 한진오 씨가 직접 쓴 병풍의 서명을 확인해본 결과 한진호가 아니라 한진오가 맞는 것으로 파악된다.



(a) 동도 포대 능선 암벽 (b) 동도 부채바위 건너편 해안 암벽

〈그림 4〉 ‘한국’, 암각문 이미지

출처: (a) 안동립 촬영(2015년 9월 22일); (b) 안동립 촬영(2012년 9월 7일).

울릉군과 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에서 발행한 또 다른 자료집 『독도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에는 최근에 발견된 ‘韓國領/한국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기존의 ‘韓國領’ 암각에 대해 독도의 상징적인 명패석이므로 위엄과 상징적인 시설물로 부각시키기 위한 공간적 분위기 조성 및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다루고 있다.¹²

경상북도에서 발행한 『독도총서』를 보면, 2008년 판에는 ‘1954년 8월 15일에 동도 암벽에 ‘韓國領’이라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으며¹³, 2010년 판에는 1954년 5월 18일에 홍순철 대장 외 32명이 ‘韓國領’을 석각했다고 진술되어 있다.¹⁴ 경상북도에서 발행한 독도총서에 한국령 암각과 관련된 내용이 이 정도로 통일되지 않은 채 기록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독도의용수비대 전투대장 출신의 정원도 씨는 의용수비대원들이 암벽을 며칠간 정으로 쫓아내고 금강석 숫돌로 갈아 다듬어 정지작업을 한 후에 울릉도에서 서예가 한진호 씨를 모셔다가 바위에 초안을 잡고 ‘韓國領’ 암각문을 새겼던 것이라고 증언한다. 또한, 정원도 씨의 증언이 포함된 같은

12 황정환, 2004, 『독도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울릉군, 342쪽.

13 경상북도, 2008, 『독도총서』, 경상북도, 190쪽.

14 경상북도, 2010, 『독도총서』, 경상북도, 56쪽.

책에는 ‘韓國’이라는 암각문은 1954년 5월 18일에 해양경찰대에서 조각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⁵

끝으로, 『나라일보』 기사에 의하면, 독도경비대 앞 암벽의 ‘한국령’ 암각문은 독도의용수비대가 새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즉, ‘한국령’ 암각문은 1954년 8월에 울릉경찰서에서 동도 정상에 독도 경비초사를 짓고, 동도 해안가에 독도 영토 표석을 건립한 이후에 새긴 것인데, 글씨를 쓰고 새긴 이는 한진호 씨라고 밝히고 있다.¹⁶

요컨대, 독도에 관해 가장 권위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울릉군과 경상북도에서 발간된 총서 등 자료집에는 독도에 새겨진 ‘한국’, ‘한국령’ 등의 암각문의 암각 시기, 주체, 과정 등에 관한 정보가 통일되지 않은채 기록되어 있다.¹⁷ 즉, 전체적인 논조는 독도의용수비대의 주요한 업적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인데, 일부 언론매체나 당시 의용수비대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증언은 서예가 한진호 씨가 암각문을 새긴 것으로 언급된다. 그렇지만, 한진호라는

15 이용원, 2015, 『독도의용수비대』, 범우, 55쪽.

16 『나라일보』, 2013. 4. 27, 나라일보 캠페인 자료.

17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기간, 활약상, 대원수 등에 관해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었다(김호동, 2010, 258쪽). 지금까지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시기를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 경찰에 경비임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3년 8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예컨대, 독도의용수비대 제1전대장이었던 서기중 씨의 진술에 의하면, 1954년 4월 홍순칠 대장과 6명이 처음 독도에 들어갔다. 또한, 그가 동년 8월에 제대했을 때 홍순칠 씨가 불려서 ‘독도의용수비대를 같이 할 생각이 없느냐’고 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한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이 1953년이 아닌 195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1978년에 출판된 『다큐멘터리 독도수비대』란 책에도 등장한다. 작고한 고 홍순칠 대장의 딸인 홍연순 씨도 ‘정부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시작을 인정하는 시기는 1954년이 맞다’고 전한바 있다. 한편, 독도의용수비대의 해산 시기도 사실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독도의용수비대는 1956년 1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존 수비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는 결성된 당해(1954년) 12월에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왜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일부가 경찰로 특채되면서 경비업무 자체가 경찰로 넘어간 것이다. 서기중 씨에 따르면, ‘1954년 12월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9명이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특채되었다’며, ‘그 이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독도 경비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제2전대장이었던 정원도 씨 또한 ‘1954년 12월에 경찰관으로 특채되었다’고 회고한다(김호동, 2010, 263~264쪽). 한편, 한진호 씨 3녀(한경자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독도의용수비대에서 독도 암벽에 암각문 새기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도의용수비대가 철수한 이후에 한진호 씨가 독도에 들어가서 암각을 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관의 주도로, 그리고 보수를 받고 이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암각을 했던 작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는 한진호라는 작자는 드러나지 않은 채 주로 의용수비대의 활동들만 부각되었던 측면이 강했다.

이름은 일반적으로 한진호로 알려져 있으며, 암각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있다.

Ⅲ. 잊혀진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의 발견 경위 및 관련 암각문의 서체 분석

연구자는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독도에 머물면서 독도에 분포하는 암각글자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연구성과는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되었다.¹⁸ 당시에는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의 위치와 흔적을 찾지 못하여 자세히 기술하지 못하였는데, 2020년 7월에 2회에 걸쳐 독도를 답사하여 마침내 그 위치와 흔적을 찾게 되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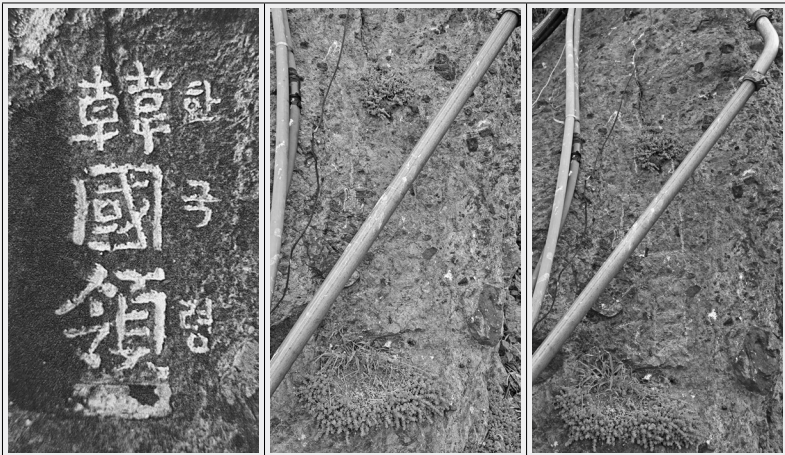
〈그림 5〉 ‘韓國領/한국령’ 암각문(1970년대 추정)
출처: www.doopedia.co.kr

18 안동립, 앞의 논문, 145~156쪽.

19 2017년 답사 당시에는 동도 부두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의 중간 부근에 있어야 하는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을 찾지 못하여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풍화로 인해 ‘시라진’ 글자로 언급한 바 있는데(안동립, 2017, 146쪽), 이 글에서는 그 암각문을 다시 찾게 되었으므로 ‘잊혀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017년에 게재된 한국지도학회지 논문에 수록된 사진은 대략 197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진에도 한자(韓國領)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옆에 새겨진 한글(한국령)은 풍화되어 희미하게 보인다(그림 5).²⁰

최근에 연구자가 발견한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였는데, 그 후로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풍화작용에 의해 현재는 그 형태가 거의 식별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연구자가 잊혀진 암각문 '韓國領/한국령'을 발견했을 때 이 암각문은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더욱이 이 암각문은 쇠파이프가 가려져 있어서 더욱 눈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자가 다시 찾은 암각문의 희미한 글자 형태를 따라 백묵으로 칠하여 그 원형을 일시적으로나마 복원하고자 하였다(그림 6).²¹



(a) 1984년의 암각문 모습

(b) 최근, 발견 당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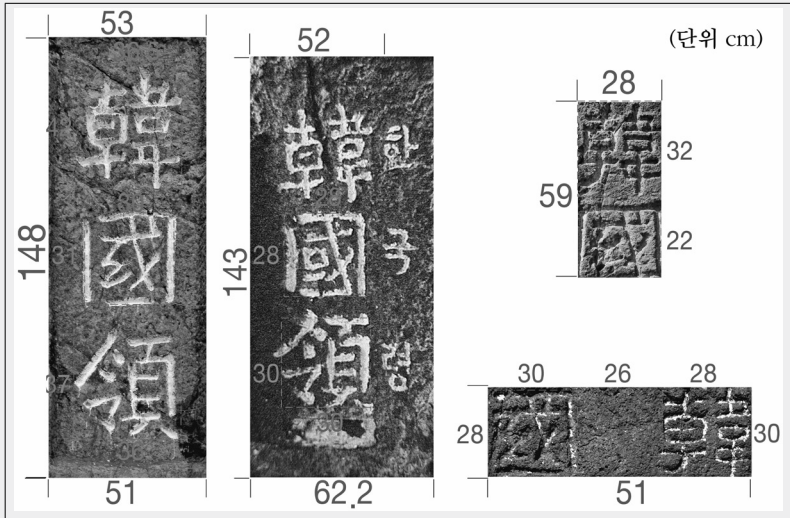
(c) 임시 복원된 상태

〈그림 6〉 잊혀진 '한국령' 암각문의 발견 전후의 상태

출처: (a) 예조원 대표(김국률) 촬영(1984. 5. 31.); (b), (c) 안동립 촬영(2020. 7. 22).

20 이 사진은 독도 부도가 완공되기 전이므로 1970년 무렵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21 발견 당시 이 암각문에서 '韓'자는 완전히 마모되었는데, '十'자의 아래 끝부분이 3cm 정도 남아 있었고, 그 나머지는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그림 7〉 글자의 크기 및 서체 비교

최근에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이 발견됨에 따라 동도에 분포하는 총 4개 처의 3가지 종류의 암각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이 새겨진 암벽의 바닥 외형은 52×143cm이고, 각 글자의 크기는 대략 30×30cm이다. 이 글자의 서체와 크기는 독도경비대에 있는 ‘韓國領’ 글자보다 약간 작다.²²

독도경비대 앞에 새겨진 암각문 ‘韓國領’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글자이다. 이 암각문에서 ‘國’자는 부수 입구(口) 안에 들어가는 ‘或’자를 초서로 ‘彡’자로 새긴 것이 특징이다. 글자가 새겨진 암벽 바닥을 다듬은 크기는 53×148cm이고, 각 글자의 크기는 36×37cm로 글자가 크고 힘이 넘친다.²³

동도 정상에서 포대 능선으로 가는 길의 암벽에 새겨진 ‘韓國’ 암각문은 글자가 세로로 새겨져 있다. 동도 부채바위 건너편 해안 암벽에 새겨진 ‘韓

22 동경 131°52′07.80″, 북위 37°14′20.28″, 고도는 45m.

23 동경 131°52′10.35″, 북위 37°14′21.99″, 고도는 81m.

國’ 암각문과 비교해 보면, 두 암각문 모두 ‘韓’자의 끝부분에서 ‘十’자 끝부분이 좌측으로 비슷한 각도로 휘어진 형태를 보이며, ‘國’자의 부수 ‘口’ 안에 들어가는 ‘或’자가 초서로 동일하게 ‘彡’자로 새겨져 있다. 글자는 사각형 모양으로 바르게 암각되어 예쁘고 균형미를 띤다.²⁴ 동도 부채바위 건너편 해안 암벽에 새겨진 ‘韓國’ 암각글자는 글자가 가로로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²⁵ 한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암각문의 위치 및 분포도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韓國’, ‘韓國領’,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의 위치도

24 동경 131°52'11.63", 북위 37°14'23.10", 고도는 90m.

25 동경 131°52'06.75", 북위 37°14'20.34", 고도는 4m.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도에 분포하는 4개 처 3개 종류의 암각문은 글자 크기가 약간 차이는 나지만, 글자 모양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사람이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IV. 풍화 및 훼손의 문제와 보존방안

암각화가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나 동굴의 벽에 그들의 생활상이나 기하학적 상징 문양 등을 그리거나 새겨놓은 그림이라면, 암각문자는 특정 사회나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주권을 강력하게 어필할 경우에 활용되었던 방식이었다. 예컨대,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나 김정일 등 주권자의 이념을 선전하고자 할 때 높은 바위산에 선전 구호를 크게 새겨놓는 사례도 있고, 남한의 경우, 일제의 도발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 또는 최상위의 방책으로서 독도 암벽에 주권국가인 ‘한국’과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은 사례가 그러하다. 이러한 암각의 형태는 나무 말뚝에 글자를 써서 세워놓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주권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견된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풍화나 훼손의 문제가 드러난다. 독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독도의 암체는 조면암, 조면안산암 I, 조면안산암 II, 조면안산암 III, 응회암, 집괴암 등으로 구분된다.²⁶ 독도의 암체는 오랜 세월동안 해수와 강우, 바람 등에 의한 침식과 풍화를 끊임없이 받음으로써 현재와 같은 가파른 암석 사면과 sea stack, sea arch 등의 지형이 만들어졌다.²⁷ 풍화 및 침식작용으로 독도에 각종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26 Shon, Y. K. & Park, K. H., 1994, Geology and evolution of Tok Island, Korea, J. Geol. Soc. Korea, 30, 242~261쪽

27 송원경·우익·김복철, 2009, 「풍화가속실험을 통한 독도 암체의 풍화특성 분석」, 『터널과 지하공간』 19(4).

2006년과 2008년에 독도 전반에 대한 정밀지반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²⁸ 평가결과는 안전한 것으로 나왔지만, 주민숙소 배후사면은 암반의 균열 및 절리가 심하게 진행됨에 따라 낙석으로 인한 피해 및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도 또한 지반 붕괴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²⁹

독도를 사례로 한 풍화연구는 많지 않다. 송원경 등은 인공 풍화가속 실험을 통하여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반의 풍화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화학적 풍화 진행에 따른 암석의 물리·역학적 특성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자연현상과의 상관성을 유추하여 독도의 풍화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³⁰ 그렇지만, 이 연구는 서도를 구성하는 암체의 시료를 채취하여 풍화가속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동도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독도에서 확인되는 기반암 풍화지형은 타포니(tafoni)이다. 타포니는 염풍 화학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으로 독도의 거의 모든 해안에 분포하며, 노출된 기반암을 삭박하고 있으므로 독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지형형성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포니는 폭풍이나 태풍이 몰아칠 때 해발고도가 높은 곳까지 비말에 의해 염분이 기반암에 운반되어 기계적 풍화작용을 일으켜 형성된다. 타포니 지형은 동도 서쪽 해안 절벽에서 두드러지게 분포하는데, 이러한 지형은 기반암이 응회암으로 된 해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타포니는 토양층으로 피복된 구역보다 기반암이 그대로 드러난 구역에서 그 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피복된 토양층이 염풍화학작용으로부터 기반암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포니의 발달에 의한 기반암의 해체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6년 3월 22일, “독도 붕괴 위험 없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8년 9월 19일, “독도 서도 붕괴 가능성은 없으나...”

29 안동립·전창우, 2019, 「독도의 산사태 지점 현황 및 변화 양상」, 『한국지도학회지』 19(1).

30 송원경·우익·김복철, 앞의 논문.

사면의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식생을 보존하여야 한다.³¹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한국령’ 암각문은 바위 표면이나 암석 절벽에 새겨진 글자는 타포니와 같은 염풍화작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암각된 부분을 토양피복이나 식생피복을 할 수도 없다. 사실상, 이러한 암각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위 표면에 묻어있는 염분을 수시로 닦아주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³²

독도의 암각문이 처해있는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각문의 풍화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국내에 산재해 있는 석조문화재의 풍화 및 훼손의 문제에 직면하여 보존처리를 시행했던 사례 및 관련 연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종현 등의 연구³³에 의하면, 한국에 분포하는 유형문화재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시도별 유형문화재까지 총 4,409점인데, 이중 석조문화재는 1,286점에 달한다. 석조문화재는 석탑, 석비, 석등, 마애불, 부도, 당간 지주, 석교, 석굴, 암각화 등이 있는데, 이들 문화재는 최소 수백년에서 천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석조문화재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도로 변형·훼손되고 있다. 우리나라 석조문화재의 훼손 유형으로는 먼저 문화재의 표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이끼류, 조류, 지의류 등에 의한 직접적인 훼손이 있고, 다음으로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훼손,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풍화에 의한 변색, 박리현상, 암석 표면의 요철현상이 있으며, 태풍에 의한 훼손, 빗물에 의한 훼손,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에 의한 훼손, 해수 분무 및 염분에 의한 훼손, 기온변화에 의한 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석조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30년 전부터 세척과 보존을 위한 노력

31 황상일·박경근, 2007, 「독도 동도 서쪽 해안의 타포니 지형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32 내륙의 바위에 새겨진 암각문은 수백년이 흘러도 훼손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거창 수승대의 거북바위에는 수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지만 풍화로 인한 훼손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33 정종현·정민호·손병현, 2007,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풍화·훼손 특성」, 『신라문화』 30.

을 기울여 왔지만, 다수의 석조문화재에서는 여전히 미생물에 의한 오염, 침식, 풍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성비, 황사, 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해 풍화 및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³⁴

다음으로, 한병일 등의 연구³⁵는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사례연구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봉암사 경내에 있는 석조문화재들은 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풍화와 훼손이 심해져 2009~2013년까지 5년간 경내 석조문화재 4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시행하였는데, 보존처리는 부도의 해체복원을 비롯하여 탑비의 지지대 교체, 탑 상륜부 해체 및 복원 등 일반적인 보존처리 외에도 중요한 시공을 하였다. 예컨대, 석탑의 보존처리는 해체 후 화강암재 부재는 건식/습식 세척과 균열부에 대한 합성수지 처리를 하였으며, 응회암재 부재에는 건식/습식 세척, 강화처리, 균열부 충전 및 접합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보존처리를 하였다.³⁶

세 번째로 김사덕 등의 연구³⁷는 생물풍화, 표면변색, 균열에 대한 보존처리 사례이다. 석조문화재들이 야외에 장시간에 걸쳐 노출되다 보면 조류, 균류 등에 의한 오염과 균열이 나타났다. 또한, 고임용 금속 철판이 부식되어 석재 표면에 산화물이 흘러내리고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해 석재의 균열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각의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존현황 조사, 형태 기록, 건식/습식 세척, 균열부 접합, 티타늄 재질의 고임 금속판으로 부식된 금속 철판을 교체하였다. 그 밖에도 보존처리는 선대류 제거, 오염물 세척, 균열부 수지 주입, 균열부 표면 마감, 배수로 확보의 과정을 거친다.³⁸

석조문화재의 관리와 보전은 쓰러진 문화재와 파손된 문화재의 보수 및 복원뿐만 아니라 석조문화재 표면의 부식이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과학적

34 정중현·정민호·손병현, 앞의 논문.

35 한병일·최준현, 2013, 「문경 봉암사 경내 석조문화재 보존연구: 보존처리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40.

36 한병일·최준현, 위의 논문.

37 김사덕·한병일, 2014, 「구례 연곡사 경내 석조문화재 보존연구: 보존처리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41.

38 김사덕·한병일, 위의 논문.

인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에서는 석조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석조문화재의 풍화와 훼손, 그리고 보존작업은 독도에 새겨진 암각문의 풍화와 훼손을 막는데 시시하는 바가 크다.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이 새겨졌던 1954년 전후의 시기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극심했던 상황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의 주도로 민간인 한진오 씨가 새긴 ‘韓國’, ‘韓國領’,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은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결과물이며, 독도를 지키겠다는 한민족의 염원이 반영된 상징물이다. 그때 새겨진 4개 처 중에서 최근에 발견한 것을 제외한 3개 처의 암각문들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최근에 발견된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은 풍화가 많이 진전되어 거의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도발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이 섬은 한국령임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했던 이들 암각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행사의 상징물로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그동안 잊혀졌던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을 포함하여 당시에 바위에 새겨진 암각문들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더 이상 풍화와 무관심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연구자는 거의 매년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의 지리, 식생, 암각글자, 산사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5~6년 전부터는 잊혀진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2020년 7월 17일에 결국 그동안 잊혀졌던 암각처를 확인하였다. 독도에는 많은 암각글자가 분포하는데, 이번에 찾은 암각문을 포함하여 총 4개 처 3개 종류의 ‘韓國’, ‘韓國領’,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은 한국전쟁 직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여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영토수호 의지가 담긴 기념비적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는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韓國’, ‘韓國領’, ‘韓國令/한국령’ 암각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는데,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韓國’, ‘韓國領’, ‘韓國令/한국령’ 암각문은 1954년의 어느 날 돌발적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해방 직후인 1947년에 한국령 표목이 설치된 이후, 일본인들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취해진 최고 수준의 주권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한국령 등의 암각문이 새겨지기 한 해 전인 1953년 10월에는 일본 측에서 독도에 설치한 죽도 표목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한국령 등의 암각문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에 연이어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상황에서 이 섬을 지키기 위한 한국 정부가 취한 영토주권 선언의 마침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한국령 등의 암각문은 독도의용수비대에 의해 새겨진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연구결과, 정부의 주도하에 민간의 전문가(한진오 씨)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행위보다는 정부의 영토수호 의지와 주권 행사가 훨씬 더 어필하는 바가 크다. 즉,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시기를 확대하거나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강도나 시기가 짧아지는 우를 범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암각의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1954년 5월에서 8월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는 울릉군이나 경상북도 등 독도에 관한 주무 기관에서조차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총 4개 처 3개 종류의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암각문들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알려진 3개 암각문 즉, 독도경비대 앞에 새겨진 ‘韓國領’ 암각문, 동도 정상에서 포대 능선으로 가는 길의 암벽에 새겨진 ‘韓國’ 암각문, 동도 부채바위 건너편 해안 암벽에 새겨진 ‘韓國’ 암각문은 비교적 풍화

에 강한 바위에 새겨진 반면, 최근에 발견된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은 암각 당시에도 이미 풍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암각된 바위의 풍화상태에 따라 선별적인 관리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독도에 새겨진 암각문의 보존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암각문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보존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석조문화재의 풍화나 훼손의 문제 및 보존방안에 관한 노하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학준, 2010, 『독도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박물관, 2019, 『한국인의 삶의 기록, 독도』 독도박물관 연구총서.
- 독도연구소 편, 2014,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동해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 이용원, 2015, 『독도의용수비대』, 범우.
- 황정환, 2004, 『독도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울릉군.
- 김사덕·한병일, 2014, 「구례 연곡사 경내 석조문화재 보존연구: 보존처리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41.
- 김호동, 2010,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계승을 위한 제안」, 『독도연구』 9.
- 배진수, 2016,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와 일본의 도발 패턴」, 『독도연구』 21.
- 송원경·우익·김복철, 2009, 「풍화가속실험을 통한 독도 암체의 풍화특성 분석」, 『터널과 지하공간』 19(4).
- 안동립, 2017, 「독도에 새겨진 암각 글자의 분석과 영토 인식」, 『한국지도학회지』 17(3).
- 안동립·전창우, 2019, 「독도의 산사태 지점 현황 및 변화 양상」, 『한국지도학회지』 19(1).
- 이기석, 2017,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 『영토해양연구』 14.
- 이범관, 2012, 「독도리 지번의 특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8(2).
- 정종현·정민호·손병현, 2007,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풍화·훼손 특성」, 『신라문화』 30.
- 한병일·최준현, 2013, 「문경 봉암사 경내 석조문화재 보존연구: 보존처리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40.
- 황상일·박경근, 2007, 「독도 동도 서쪽 해안의 타포니 지형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 『경상매일신문』, 2016. 8. 12, 한국령(韓國領).
- 『나라일보』, 2013. 4. 27, 나라일보 캠페인 자료.
- 『연합뉴스』, 2016년 8월 10일자 기사, '독도 한국령 첫 표시' 1947년 표목 사진 원본 공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6년 3월 22일, "독도 붕괴 위험 없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8년 9월 19일, “독도 서도 붕괴 가능성은 없으나…”

경상북도, 2008, 『독도총서』, 경상북도.

경상북도, 2010, 『독도총서』, 경상북도.

Shon, Y. K. & Park, K. H., 1994, Geology and evolution of Tok Island, Korea, J. Geol. Soc. Korea, 30.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독도의 암벽에 새겨진 영토주권 관련 암각문의 암각 배경 및 주취, 암각 경위, 주권적 의미, 보전방안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에 연이어 해방 후에도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독도에 새겨진 ‘韓國’, ‘韓國領’,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은 이 섬에 대한 영토주권 선언의 마침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한국령 등의 암각문이 독도의용수비대에 의해 새겨진 것으로 알려진 경향이 강했는데, 연구 결과, 한국령 등의 암각은 정부의 주도하에 민간 전문가(한진오 씨)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암각의 시기는 1954년 5월에서 8월 사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셋째, 지금까지는 울릉군이나 경상북도 등 독도에 관한 주무 기관에서 조차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총 4개 처 3개 종류의 암각문들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에 알려졌던 3개 암각문 즉, 독도경비대 앞에 새겨진 ‘韓國領’ 암각문, 동도 정상에서 포대 능선으로 가는 길의 암벽에 새겨진 ‘韓國’ 암각문, 동도 부채바위 건너편 해안 암벽에 새겨진 ‘韓國’ 암각문은 비교적 풍화에 강한 바위에 새겨진 반면, 최근에 발견된 ‘韓國領/한국령’ 암각문은 암각 당시에도 암벽이 이미 상당부분 풍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암각된 바위의 풍화상태에 따라 선별적인 관리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독도에 새겨진 암각문의 보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암각문들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보존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독도, 암각문, 한국, 한국령, 평화선, 영토주권, 보존방안

ABSTRACT

Sovereign Implications and Conservation Methods on Petroglyphs such as “Korea” and “Korean Territory” Carved in Dokdo

An, Dong-Lip

(CEO, Dong-A Mapping Co.)

Yi, Saangkyun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background and hosting on petroglyph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carved on rocks in Dokdo, history, its sovereign implications and methods for conservation.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d taken a number of measures to protect this island amid Japan’s invasion to this island even after a series of colonization and independence. The study suggested that petroglyphs such as “Korea(韓國),” “Korean territory(韓國領)” and “Korean territory(韓國領/한국령)” carved on rocks in this land mark the end of declaring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is island. Second, it has been generally acknowledged that petroglyphs, including Korean territory, were carved by the volunteer corps for defense Dokdo. However, it was found that it was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together with an expert (Han Jin-o).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carving was probably implemented between May and August, 1954. Third, even institutions in charge of Dokdo such as Ulleung-gun and Gyeongsangbuk-do have not been thus far aware of petroglyphs such as “Korean territory.” As evidenced by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hereabouts and thoroughly manage three type petroglyphs in four areas representing territorial sovereignty. Fourth, it is assumed that the three petroglyphs such as “Korean territory(韓國領)” petroglyph carved in front of the Dokdo Security Guards, “Korea(韓國)” petroglyph carved on the rock on the way from the summit on the east island to the artillery unit ridge and “Korea(韓國)” petroglyph carved on the coastal rock across the Buchaebawi on the east island were carved on the rocks well resistant to erosions. The newly discovered “Korean territory(韓國領/한국령)” petroglyph is estimated to have undergone considerable erosions even when it was initially carved.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manage selected petroglyphs based on the degree of erosion. Fifth, there has been no thorough review on the conservation of petroglyphs carved on the rocks in Dokdo. Thus, designating them as cultural assets is required given their implications and value representing territorial sovereignty. Afterwards, it is important to set up concrete methods for conservation.

Keywords

Dokdo, Petroglyph, Korea, Korean territory, Peace Line, Territorial sovereignty, Methods for conservation

